

미 국

2003. 9

나수엽

(syna@kiep.go.kr)

I. 일반개황

□ 자연지리

- 국토면적: 9,159,115 km²
- 인 구: 2억 7,500만명(2000년 기준)
- 기 후: 대부분 온대기후
- 시 간 대: GMT보다 동부는 5시간, 중서부 지역은 6~8시간 늦음.

□ 행 정

- 공식국명: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
- 수 도: 워싱턴(Washington D.C.)
- 행정조직: 연방제(50개주로 구성)

□ 정 치

- 정부형태: 대통령 중심제(4년 임기)
- 대 통 령: 부시(George W. Bush)
- 의회형태: 양원제(상원:100석, 6년 임기. 하원:435석, 2년 임기, 2002년 11월 선거)
- 주요정당: 공화당(상원 51석, 하원 229석), 민주당(상원 48석, 하원 205석)

□ 사회·문화

- 민 족: 백인(86%), 흑인(12%), 황인(1%), 기타(1%)
- 언 어: 영어
- 종 교: 신교(56%), 로마카톨릭(28%), 유대교(2%)
- 교 육: 의무교육(12년)

한국과의 관계

- 국교수립: 1948년 8월 13일
- 협정체결: 항공운송협정(1998년),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1999년)
- 특기사항: 한국전 참전(육군 제8군, 해군 제7함대, 제5공군, 해병 1개사단)

II. 주요 경제지표

1. 최근 경제동향

주요 지표	단위	2002년	3/4	4/4	2003 1/4	2/4
인구	백만명	286.9	-		-	
명목 GDP	십억달러	10,446.2	10,506.2	10,588.8	10,688.4	10,793.9
1인당 명목GDP	달러	36,392	-		-	
실질성장률	%	2.4	4.0	1.4	1.4	3.1
실업률	%	5.8	5.8	5.9	5.8	6.2
소비자물가상승률	%	2.4	1.8	2.5	3.0	2.1
재정수지(GDP대비)	%	-1.5	-		-	
수출	십억달러	682.6	175.8	170.7	173.3	174.2
수입	"	1,166.9	298.9	302.9	309.4	312.3
무역수지	십억달러	-484.4	-123.3	-132.3	-136.1	-138.1
경상수지	"	-503.4	-127.0	-136.8	-136.1	-
외환보유고	십억달러	78.6	75.5	78.6	79.4	82.5
환율	달러/유로	0.9454	0.9806	0.9454	1.0797	1.1674

주 : 1)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각 분기말 전년대비 기준.

2) 재정수지는 회계연도(10.1~9.30) 기준임.

3) 외환보유고 및 환율은 각분기말 기준.

자료 : 미 상무부, 미 연준(FRB), EIU

2. 향후 경제전망

주요지표	단위	2003	2004	2005	2006	2007
실질 GDP증가율	%	2.6	4.1	3.7	3.6	3.4
소비자물가상승률	%	2.3	1.2	1.8	1.8	2.0
경상수지	십억달러	-558	-625	-679	-702	-730

자료: Global Insight. 2003. 9

3. 대외경제관계

가. 품목별 수출입

(단위 : 십억 달러, %)

	2000	2001	2002	2003. 1~7	
				금액	비중(%)
<주요 수출품목>					
자본재	357.0	321.7	290.6	166.0	40.8
공업용원자재	171.9	160.1	156.9	100.4	24.6
소비재	90.6	88.3	84.4	51.2	12.5
자동차 및 부품	80.2	75.4	78.4	46.7	11.4
식음료	47.5	49.4	49.5	30.6	7.6
<주요 수입품목>					
자본재	346.7	298.0	283.9	168.3	23.0
소비재	281.4	284.3	307.7	191.3	26.4
공업용원자재	299.8	273.9	269.1	184.0	25.7
자동차 및 부품	195.8	189.8	203.9	122.1	16.5
식음료	46.0	46.6	49.7	31.9	4.4

자료: 미 상무부, Bureau of Economic Analysis, U.S.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AND SERVICES, 2003. 9

나. 지역별 수출입

(단위: 십억 달러, %)

	2000	2001	2002	2003. 1~7	
				금액	비중
<주요 수출대상국>					
캐나다	178.8	163.7	160.8	98.3	23.7
멕시코	111.7	101.5	97.5	54.5	13.1
일본	65.3	57.6	51.4	30.2	7.2
중국	16.3	19.2	22.1	14.7	3.7
영국	41.6	40.8	33.3	20.1	5.0
<주요 수입대상국>					
캐나다	229.2	217.0	210.6	129.0	18.7
영국	43.5	41.4	40.9	24.5	3.4
일본	146.6	126.6	121.5	68.4	9.7
멕시코	135.9	131.4	134.7	78.8	11.3
중국	100.0	102.3	125.2	80.1	10.5

자료: 미 상무부, Bureau of Economic Analysis, U.S. INTERNATIONAL TRADE
IN GOODS AND SERVICES, 2003. 5

다. 미국의 해외직접투자 및 외국인투자

(단위 : 십억 달러)

	1999	2000	2001	2002
<해외직접투자>				
연 간	174.6	165.0	114.0	109.0
(업 중 별)				
제조업	34.9	58.0	36.4	25.6
금융, 보험 및 부동산	86.4	54.1	35.0	47.1
정유업	9.4	10.6	12.7	9.6
도매업	6.4	12.4	9.3	11.9
서비스	14.5	10.8	7.5	9.4
(국 가 별)				
영국	47.8	35.8	13.2	18.6
캐나다	18.1	19.0	14.4	17.3
스위스	8.4	10.0	6.6	7.7
네덜란드	8.3	3.0	16.1	18.4
멕시코	5.9	5.3	15.1	3.6
<외국인직접투자>				
연 간	283.4	301.0	124.4	23.6
(업 중 별)				
제조업	69.6	58.0	29.2	6.2
정유업	4.8	10.6	10.3	5.6
예금기간	19.3	11.9	8.4	-1.5
도매업	16.2	17.5	1.9	8.5
금융업	18.0	23.6	6.4	-8.8
(국 가 별)				
영국	116.6	75.7	14.2	9.4
네덜란드	41.7	39.6	15.2	-3.5
룩셈부르크	6.9	25.2	-13.8	10.9
프랑스	29.8	49.4	14.7	7.1
독일	23.5	14.3	28.0	-2.6
캐나다	26.4	26.0	4.6	-5.5

자료 : 미 상무부, Bureau of Economic Analysis, International Investment Data, 2003. 3.

4. 한·미 경제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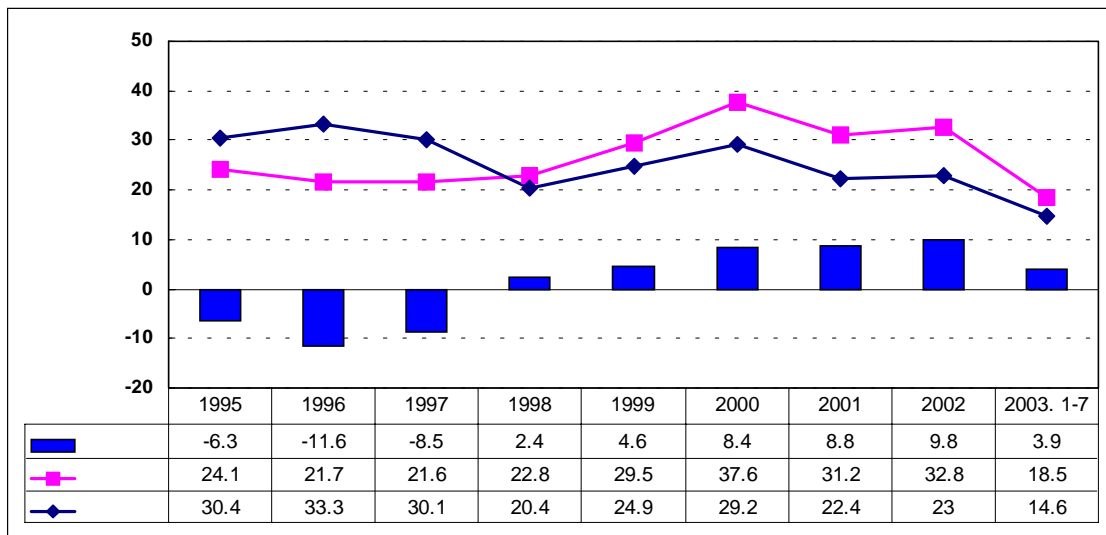
가. 교역

□ 교역비중

- 미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자 제 2의 수입국(2002)
- 한국은 미국의 7대 교역상대국, 6번째 수출국(2002)

□ 연도별 수출입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2003)

□ 업종별 수출입 내역

(단위 : 백만 달러)

수 출			수 입		
품 목	금 액		품 목	금 액	
	2002	2003. 1~7		2002	2003. 1~7
자동차	6,993.3	4,325.0	반도체	4,758.8	1,729.4
반도체	3,727.0	1,722.3	항공기 및 부품	1,181.2	209.7
무선통신기기	3,810.4	2,590.9	컴퓨터	1,030.7	244.1
컴퓨터	2,861.4	1,221.5	반도체 제조용 장비	762.1	574.9
의류	1,942.5	918.8	육류	756.0	291.1

주 : MTI 3단위 기준

자료 : 한국무역협회, KOTIS

나. 투자

□ 투자비중

○ 미국은 한국의 최대 해외투자국이자 외국인투자국임.(2002)

□ 양국의 연도별 對미 투자/對韓 투자 추이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총투자기준)>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1~3	합계
금액(백만달러)	916.3	1,377.8	1,299.6	1,432.0	543.7	419.7	11,566.1

자료 :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동향』, 2002. 09.

<미국의 對韓 직접투자(도착기준)>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1~8	합계
금액(백만달러)	391.9	1,486.1	2,002.3	1,762.1	839.4	296.3	10,261.1

자료 :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동향』, 2002. 9.

□ 한국의 對美 업종별 해외투자(총투자기준: 2003년 6월까지 누적기준)

(단위: 백만 달러)

업 종	금 액
제조업	5,419.8
도소매업	3,808.4
부동산 및 서비스업	1,110.2
통신업	411.5
숙박·음식업	326.7
광업	191.3
건설업	172.2
운수창고업	62.1
농림어업	51.6
금융보험업	12.3
합 계	11,566.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IV. 경제현안

1.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경기회복세 가시화

□ 미국경제는 금년초 이라크전의 여파와 고용시장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불안한 양상을 보였음.

- 특히 실질GDP증가율은 지난해 4/4분기에 이어 금년 1/4분기 연속 1%대의 저성장세를 유지함.

□ 그러나 이라크전의 조기 종결로 인해 소비 및 투자심리가 미약하나마 회복될 기미를 보이면서 고용부문을 제외하면 4월 이후 전반적으로 점차 개선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미상무부의 발표(8.29)에 따르면 금년 2/4분기 미국의 실질GDP증가율이 소비지출(3.8%), 기업투자(8.0%)의 견실한 증가세에 힘입어 2.4%(추정치)에서 3.1%(잠정치)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최근 소매매출을 비롯 산업생산, 자본재 신규주문 등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크게 호전됨으로써 향후 미경제 성장 가속화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대두되고 있음.

<미국경제의 주요 거시지표 증가율 추이>

(단위: %, 전기대비연율)

	2002	2002. 1/4	2/4	3/4	4/4	2003. 1/4	2/4
실 질 G D P	2.4	5.0	1.3	4.0	1.4	1.4	3.1
개인소비지출	3.1	3.1	1.8	4.2	1.7	2.0	3.8
비주택고정투자	-5.7	-5.8	-2.4	-0.8	2.3	-4.4	8.0
수 출	-1.6	3.5	14.3	4.6	-5.8	-1.3	-1.2
수 입	3.7	8.5	22.2	3.3	7.4	-6.2	-7.9
정 부 지 출	4.4	5.6	1.4	2.9	4.6	0.4	8.2
GDP디플레이터	1.1	1.3	1.2	1.0	1.8	2.4	0.8

주: 수출과 수입은 서비스부문 포함.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Gross Domestic Product: 2nd QUARTER 2003 (PRELIMINARY), AUGUST 28, 2003*

- 5월(0%→0.5%)과 6월(0.5→0.9%) 소매매출이 큰 폭으로 상향조정된 가운데 7월 매출도 1.4% 급증한 것으로 집계됨으로써 소비지출이 여전히 경제성장의 버팀목이 될 것임을 시사함.
- 또한 IT 부문의 주도로 6월 산업생산도 6개월만에 최대인 0.5%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비국방부문 자본재 신규주문도 6월 증가세로 반전됨에 따라 기업투자 회복 기대를 높여주고 있음.
- ISM지수도 5월 이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7월에는 51.8을 기록하며 그동안 침체에 빠졌던 제조업경기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신규주택판매와 주택착공도 꾸준한 상승세를 지속하며 그동안 소비지출과 함께 침체속에서도 미경기를 지탱하였던 주택경기가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음을 반영함.

<미경제의 최근 주요 경기지표 추이>

	200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개인소비지출증가율(%)	0.0	0.0	0.8	0.0	0.5	0.6	0.8
소매판매증가율(%)	0.4	-1.4	2.3	-0.3	0.5	0.9	1.4
산업생산증가율(%)	0.7	0.1	-0.6	-0.5	0.1	0.0	0.5
비국방부문자본재 신규주문증가율(%)	1.9	-4.9	3.2	1.8	-0.9	3.8	1.2
소비자신뢰지수 ¹⁾	78.8	64.8	61.4	81.0	83.6	83.5	77
ISM지수	53.9	50.5	46.2	45.4	49.4	49.8	51.8
신규주택판매호수 (천호)	1,009	935	1,008	1,004	1,108	1,200	1,165
주택착공호수(백만호)	1.828	1.640	1.742	1.627	1.745	1.845	1.872

주: 컨퍼런스보드 발표기준임.

□ 미경제가 전반적으로 개선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고용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001년 8월까지 4%대에 불과하던 미국의 실업률은 2001년 9월 이후 지금까지 5% 후반대를 지속하고 있으며 2003년 4~8월까지 4개월 연속 6%대로 치솟은 상태임.

- 또한 2002년 상반기 이후 보합세를 나타내던 비농업부문의 고용인구수는 지난해 연말에 하락 기미를 보이더니 금년 1월 이후 8월까지 7개월 연속 하락추세에 빠져있음.

나. 미경제의 불안요인 및 향후 전망

□ 현재 회복기에 진입한 미국경제는 가계 및 기업들의 채무부담 증대, 쌍둥이적자, 고용시장 불안지속 등 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음. 이러한 불안요인들이 단기에 별다른 파급효과 없이 해소될 성질은 아니며, 특히 고용시

장 불안은 실물경기회복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어 향후 경기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경제지표상 전반적인 회복세와 더불어 노동생산성 향상 추세,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대응 등 미국경제의 펀더멘털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다시 침체국면에 빠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특히 2/4분기 실질GDP 실적 발표 결과 그동안 부진했던 기업투자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금년 5월 제정된 3,500억 달러 규모의 조세감면 정책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대효과로 인해 소비지출의 견조세도 유지될 것으로 기대됨.

-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저금리 정책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경기부양을 지지하고 있는데, 지난 6월 25일 단기정책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함으로써 연방기금금리는 현재 1.0%로 195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음.

- 미연준리는 8월에 이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연방기금금리를 현재의 1%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함.

- 연준리는 8월에 이어 9월 회의에서도 상당기간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는바, 이는 경제성장률이 가속화되더라도 인플레이가 반등하지 않는 한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달한 것임.

□ 이상과 같은 요인들을 감안할 때 향후 미경제가 현재보다 악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금년 3/4분기 이후 더욱 가시적인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주요 투자은행 및 경제예측기관들은 3/4분기 경제성장률이 4%를 웃돌 것이라며 전망치를 상향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바, 2003년 미국경제의 실질GDP는 2.5%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기업투자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미국경제는 2004년에는 4%대의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본격적인 팽창국면에 진입할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전망됨.

2. 한·미국 경제현안

가. 개요

- 미국은 교역·투자 등에서 한국의 최대 경제대상국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데 외환위기 이후에도 지속된 미국 경제의 활황세는 우리 상품의 수출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함.
- 한국은 1990년대초 이후 미국시장에서의 경쟁력열세와 국내기업의 시장다변화 정책에 따라, 미국에 대한 교역의존도가 꾸준히 감소하여 왔으나, 2000년부터 미국을 제외한 세계각국의 경제침체가 두드러지면서 미국과의 교역의존도가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한-미 양국 교역규모는 2002년 기준 558억 달러로 미국은 한국의 제1의 수출상대국(전체 수출의 20.2% 비중)이며 일본에 이어 제2의 수입대상국임(전체 수입의 15.1% 비중).
- 그 동안 한국의 對美 무역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對美 무역수지적자 해소문제가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로 대두되어 왔으나, 1997년 말 한국의 외환위기로 인해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1998년부터 대미무역수지는 흑자로 반전되었음.

- 2002년 대미수출은 미국이 2001년에 비해 다소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함에 따라 자동차, 반도체 등의 수출이 증가함으로써 5.0%의 증가율을 기록.
- 대미수입 역시 약 2.8%의 증가율을 기록함으로써 2002년 무역수지는 98억 달러의 흑자를 시현.
- 2003년 1~7월중 대미수출은 미국의 IT부문 투자부진으로 컴퓨터, 반도체 품목의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및 무선통신기기의 수출증가로 전년 동기대비 1.8% 증가한 185억 달러를 기록.
- 동기간 대미수입은 컴퓨터 및 항공기부품 등의 수입이 감소하고 반도체, 육류 등의 수입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동기대비 10.1% 증가한 146억 달러를 기록.

나. 한-미간 주요 통상현안

- 하이닉스 상계관세부과를 제외하면 지난 1년 동안 한미통상관계가 특별히 악화되지는 않았지만, 2004년 대통령 및 상하원의원선거를 앞두고 있어 미국의회의 보호무역주의적인 성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돼, 한미통상이 다시 악화될 가능성은 있음.
- 지난 6월 16일 미국 상무부는 하이닉스에 44.71%, 삼성전자에 0.04%(미소 관세)의 상계관세부과를 최종 판정하였으며, 미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는 7월 23일 하이닉스사의 DRAM 수출이 미국 DRAM 산업에 피해를 입혔는지 여부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하이닉스 DRAM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었다고 최종 판정하였음.
- 이에 따라 하이닉스사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한 지난 6월 16일 미 상무부의 결정이 확정되었음.

- 이에 한국정부는 작년 11월 마이크론사의 제소이후 각종 채널을 통해 하이닉스사 채무재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른 채권단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진행되었고, 하이닉스사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금번 ITC의 산업피해 판정을 통해 미 정부의 상계관세 부과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힘.
 - 또한 한국정부는 지난 6월 30일 미 상무부의 최종판정 결과를 WTO에 제소한 데 이어 금번 ITC의 산업피해 최종판정에 대해서도 구체판정내용에 대한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WTO에 제소할 방침임.
- 2002년 수입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1.3%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를 상회하였고, 특별소비세 인하 등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자동차문제가 양국간 심각한 통상마찰을 야기할 가능성은 낮으나 미국은 관세인하, 소비자인식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전망됨.
 -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미국은 2002년에 이어 2003년에도 한국을 감시리스트(Watch List)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한국에 대한 감시를 강화시켜 달라는 민간단체(국제지적재산권연합, IIPA)의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통신, 게임 소프트웨어, 대학가 교재복사, 불법 영화복사 등의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가 지속될 전망이다.
 - 의약품에 대한 통관문제 및 가격설정, 화장품의 통관절차문제 및 의약품과의 관계,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라벨링 문제도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음.
 - 1998년 한국정부가 한미 양자간 투자협정(BIT)을 먼저 제안하였고 2000년 5월 사실상 합의되었으나, 스크린쿼터에 대한 우리의 입장번복으로 협상이 중단되었음. 미국은 스크린쿼터 등 한국의 내부적 문제가 사전에 해

결되면 언제든지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임.

□ 2004년 대통령 및 109차 의회(상원: Class III, 하원전체)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미국 의회는 보호주의적인 성격이 강화되고 있는데, 반덤핑 등 무역 구제법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다자 및 양자통상협상에서 강력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2002년 12월말 기준)

- 반덤핑 및 상계관세: 총 23건 18개 품목

- 세이프가드: 3건 3품목

○선재(Certain Steel Rod): 99.1 세이프가드 제소, 00.2 구제조치 발표 (TRQ)

○ 기용접 강관 (Circular Welded Carbon Quality Line Pipe): 99.6 세이프가드제소, 00.2 구제조치 발표(고관세)

○철강(Steel, 16개 품목군): 01.6 세이프가드 제소, 02.3 구제조치 발표

<한-미 주요 통상현안>

주요 통상현안	통상현안 내용
▲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년 10월 MOU 체결 이후에도 미국측은 여전히 한국시장 내 낮은 수입차비율을 지적하고 있음. · 대우자동차에 대한 매각협상이 타결되었으나, 앞으로도 한국측이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구조조정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함. · 또한 미국 측은 고관세와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급격히 달라지는 세금구조, 소비자 인식(과거 정부주도의 반수입 캠페인의 영향), 지나치게 부담이 되는 표준·인증제도 등을 지적
▲ 철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내 한국 철강제품의 수입증가에 따라 미국 정부는 철강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적절한 적법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또한 포철의 완전민영화, 시장원리에 입각한 한보철강처리 등을 강조
▲ 의약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정부는 1998년부터 의약품분야 제도개선을 추진함에 따라 대부분의 이슈를 해결하였으나, 미국은 정부검사에 따라 제출한 의약품정보(기업비밀) 누출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 화장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 개정된 화장품 관련 의약품법의 내용 중 일부(품목분류, 효율성 증명 기준 등)가 모호하다고 지적
▲ 지적재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한국의 법률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 그러나 기업비밀정보의 누출, 국내인들의 외국상표권 국내등록, 서적의 불법복사 등을 지적 · 지난해 Special 301조 국별 지정과 관련 우리나라를 우선감시대상국(PWL: Priority Watch List)에서 감시대상국(WL)로 하향조정.
▲ 수입규제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현재 대부분 철강제품을 중심으로 18개 한국상품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취하고 있음